

“사찰경제도 IMF 한파”

보시금 줄어 불사 연기등 건축 관람료 사찰 내방객 30% 감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IMF 한파가 사찰에도 몰아치고 있다. 보시금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관람료사찰의 경우 많게는 30% 가까이 내방객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각 사찰은 경성비 절약, 각종 건축불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는데, 올해는 마음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묘사제와 천불전 건립불사도 연기할 계획입니다.” 청주관음사 총무 현진스님은 “최근 들어 보시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시금이 줄었다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통도사 범어사 월정사 동해삼화사 등의 사찰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시금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찰재정 가운데 입장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문화재 사찰도 마찬가지다. 화엄사는 12월 현재 작년 대비 입장객수가 30% 가량 줄었다. 경북영일사의 경우는 작년 11월에는 1만명 이상 내방객이 있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8천여명에 그쳐 IMF한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신홍사의 내방객수는 평년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공비침투로 관람객이 급감, 사찰운영에 애를 먹었는데 내년에도 그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심포교당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서울강남구 7선원의 주지스님은 “IMF 한파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기도 전에 보시금이 이미 줄어들고 추세라면 내년도는 엄청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걱정했다. 평택시 금강정사도 보시금이 많이 줄어 내림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라 전체가 경제한파가 몰아치는 판에 사찰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통도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기 수도 유류 등을 필요한 시간대에만 사용하지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불사계획도 없다. 대운사는 스님들의 해외성지순례를 일체 금지하고 신도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했다. 상설수련원 등 예정했던

불사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서울불광사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와 보시금에는 별 차이가 없어 이제, 이 사찰의 한 소임자는 “다른 절에 비해 대중동참을 강조하는 신행분위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것 같다. 큰 보시금을 내는 신도들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운·김주일 기자)

교계 복지시설 후원비 줄고있다 승가원·연꽃마을등 불황여파 운영꿈

경제불황여파로 후원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복지시설과 단체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의 경우 후원회비가 이달 들어 10% 감소했으며 특히 산하 소책새마을의 경우 방문자만도 한 달에 8백여명에 이르렀으나 11월부터 1백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라다보니 후원회비 또한 자연감소하여 지출폭이 늘어났고 있다고. 또 이달들어 수원등 2개지역에 노인병원을 개원할 예정인 복지

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의 경우 후원회비가 10월 대비 30%나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단체의 경우도 이같은 상황은 마찬가지. 교계에서 탄탄한 후원회를 자랑하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와 생명나눔실천회도 후원회비가 50%나 감소하여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이달 들어 15%의 후원금이 마비됐다.

통도사앞 고도제한 완화

양산시, 25m까지 건축 허용 통도사 “경관 훼손” 취소요구

경남 양산시가 “통도사앞 5만5천평의 고도제한지구를 내년 2월부터 완화할 방침이다”고 밝힌 통도사찰의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양산시는 11월 27일 지역발전 불균형 심화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겠다고 현재 15m로 제한돼 있는 통도사앞에 25m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5층으로 건설제한됐던 아파트는 10층까지 상가건물은 8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대해 통도사는 10일 양산시에 “전통사찰 보존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지난 90년 시가 통도사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고도제한지구로 선정된 만큼 최고고도 지구 변경안은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 뉴스

해군 3함대 범담 추진

해군 3함대 범담이 권령 28평에 아이슬(조립식)범담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스님)는 부산에 위치한 해군3함대 사령부 간 이법담 건립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파라미터 기구 개편

파라미터 청소년협회(회장 현근)는 3일 중앙사무국의 기구개편을 단행, 활로 모색에 나섰다.

포교연구실 중심으로 실무집행을 해 왔던 파라미터는 이를 3개 부서로 개편,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한 포교자문위원회, 포교연구실, 실행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리의혹 범사 처리 논의

군순단(단장 이회용)은 4일 군순단 장실에서 이회용단장 출법 이후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리 의혹이 있는 4명의 군법사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총무원 호법부에 조사의뢰 접수전 자체 호법위원회의 재검토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처리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사암련 사업확정

서울 성북구사암련협회(회장 종본스님·경국사 주지)는 2일 정릉부에서 송년법회 및 각 정당 불교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성북구사암련협회는 내년도에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 △경로잔치 △불자학생 장학금 지급 △주민주권대회 개최 △사무원 마련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일일차집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北돛기 겨울용품 기증

해인사 강원 학인스님들은 1일 북녘동포 겨울나기를 위한 ‘돛보내기운동’을 통해 모은 티셔츠, 양말 장갑 등 겨울용품 2백여점을 우리민족서로 돕기불교운동본부에 기증했다.

네팔에 초등학교 세운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부지 1천8백여평 매입...내년 3월 기공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부처님 탄신지 네팔 카필라성에 2백여평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설립한다. 우리나라 불교단체가 순수한 보시금으로 외국에 학교를 지어 현지 학생을 교육,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23~4일까지 네팔 현지지를 방문해 1천8백평의 학교부지를 매입한 김재일회장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이 가난으로 어린이 교육을 받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

까워 학교를 설립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도움기구가 설립하는 네팔 초등학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 총 공사비 4천여만원을 들여 건평 3백평, 7학급 수용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3월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통강원연합 ‘결성’ 초대의장에 종현스님

전국전통강원연합(이하 강원련)은 11월29일 해인사 강원에서 16개 전통강원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초대의장에 종현스님(해인사 강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전국승가대학연합은 중국대 석림회와 중앙승가대학, 강원련으로 구성 운영된다. 강원련은 이후 이남 △강원간의 학술연구교류 △사찰수행환경 보존활동 △인적·소모임교류 △포교 및 봉사활동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종현스님은 “대의적인 일보다는 전통강원의 위상강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네팔 카필라성을 방문, 초등학교 부지 매입후 현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김재일회장.

도심수행도량 길상사

14일 개원

‘열린시민선방’도 운영

재가불자들을 위한 도심속의 상설 수행도량이 될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주지 청화)가 14일 개원법회를 대대적으로 봉행한다. 창건주 길상화보살을 비롯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에는 보성 송광사 방장스님의 고불문 봉독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율주스님의 치사, 김수환추기경의 축사, 법정(길상사회주)스님의 법문, 초청 장재연의 찬경 발원문 낭독, 화합의 연등 밝히기 순으로 진행된다.

개원식을 시작으로 재가불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수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언제든지 참석 수업을 할 수 있는 ‘열린 시민선방’이 개원과 동시에 개방된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직장인 수련회’와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 수련회’를 매월 1~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7~9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도 준비돼 있다.

현재 극락전(5백여명 수용)과 신행전(8백여명 수용), 도서관, 선방, 식당, 종각 등 10여채의 건물을 개·보수한 길상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와 경사로, 전용 화장실 등도 갖춰 놓았다.

연말에는 각종 상(賞) 소식이 지면을 장식한다.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일 것이다.

(사)불교도가 주최하는 제5회 ‘지랑스런 불자상’에 ‘명찰순례’등의 저자이며 유명한 미술사학자 최완수선생이 선정됐다. 최완수선생은 불상연구의 대가로 여러 사찰의 불상조성에 자문을 맡았으며 특히 선생이 직접 답사해 쓴 ‘명찰순례’는 우리나라 각 고찰의 연혁과 유래 등을 사료를 통한 정통 사학적 입장에서 쉽게 소개한 책이다. 스테디셀러인 ‘명찰순례’는 고찰의 면면들을 잘 알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해 이번 ‘지랑스런 불자상’에도 그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펼친 불자 특히 불교포교를 위해 단단히 한 뜻을 한 이들에게 상을 주는 일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불교계가 이러한 상 주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되돌아 볼 일이다. 불교의 선(禪)적 세계를 탁월한 영상미로 나타낸 영화 ‘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해외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후 국내에서도 화제를 뿌리며 이후



이 경숙 (취재2부 부장)

상(賞)에 인색한 불교계

‘화엄경’ ‘오세암’ 같은 불교영화가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제작자인 배용준 감독에게 불교계에서 감사장 하나 주었다는 소식을 과묵한 탓인지 들지 못했다.

1990년 초연된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불교영극으로는 드물게 공

전의 히트를 기록했으며 연극계 상을 휩쓸고 이후 지금까지도 수차례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인기극이다. 그러나 참으로 힘들고 힘든 ‘불교영극의 스테디셀러’를 기록한 작가 이만희씨에게 교계에서 공로패 하나 전달했는가.

책상에 대한 감사와 향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불교를 위해 일을 한 사람, 특히 문화인들을 격려하고 고무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열매를 위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간수록 첨단 매스컴 사회가 되어가는 현대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작가는 물론 대중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화감독, 방송작가, PD, 탤런트, 가수, 배우 등, 불교홍포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이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인색하지 않도록 불교계 특히 중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안부기념관 개관준비위 발족

나눔의 집(원장 해진스님)은 7일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개관준비위’ 발족식을 가졌다. 개관준비위(준비위원장 왕주조계종 총무원장)는 3·1절 공식 개관을 앞두고 내부전시물과 유물제작, 구입비용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과 기념관 건립 모금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2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개관을 위한 ‘기념관 후원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가수 노영심 한울 성악가 최현수씨 등이 출연한 이날 음악회는 12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오전 9시 방송)’에서 특별방송한다. 방송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전화 통화로 5천원씩 동참할 수 있는 ARS(전화 700-0915)를 개설한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태아기 인체의 태초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외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出)시킵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앙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멎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게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빨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를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던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